

Words & Grammar

이 자료는 어법 매뉴얼이고

어법을 대비하는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어법을 대비해야 하나?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그리고 어법 문제를 풀다 보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해석이 먼저냐, 문장구조가 먼저냐?

문장구조가 먼저고 해석은 나중입니다.
물론 구조파악과 의미파악(해석), 이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구조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그다음에 해석으로 답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구조먼저 해석나중입니다!

수능 어법에는 왜 시제/가정법/조동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애네들의 어법상 적절성을 해결하려면 모두 엄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사를 묻는 문제 유형이 수/태/시제, 이렇게 3가지인데 이 중 수와 태는 잘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수	태	시제
<u>구조파악</u>	<u>필요</u>	<u>필요</u>	<u>불필요</u>
의미파악 (해석)	불필요	필요	필요

위 표에서처럼 수와 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주어 동사 찾기 등의 구조 파악이 필요
한 반면 시제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하는지를 묻는 건, 이미 어법 이외 27문제로 충분하다는 거죠.

수능에서 묻는 건 문장구조입니다.

문장구조를 익혀야 영문을 해석할 수 있죠.

그 누구라도 주어 동사는 찾을 줄 알아야 하고

목적어와 수식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수능 어법에서 묻는 건 그 '문장구조파악 자체를 할 줄 아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너 대충 읽냐? VS 구조 파악 잘하면서 정확히 읽냐?] 라는 겁니다.

해석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다만 후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수능 어법 문제 정답률이 51%였고
오답 선지였던 4번과 5번에 무려 35%의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 정답 선지 3번 : 51% (해석 불필요)
- 오답 선지 4번 : 15% (해석 필요)
- 오답 선지 5번 : 20% (해석 필요)

이 정도면 그야말로 최고의 낚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4번과 5번 선지를 분석하려면 해석을 기준으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길어지니 자세한 건 첨부파일로 올릴게요.

다시, 어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1.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둔다. (주어/동사 찾기, 절 묶기 등)
2. 문제를 풀고 틀린 것을 익힌다. 이 자체로 해석 연습이 됨
3. 소스는 평가원 기출과 EBS 변형으로

Words & Grammar

28. (18학년도 수능)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3점]

Psychologists who study giving behavior ① have noticed that some people give substantial amounts to one or two charities, while others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Those who donate to one or two charities seek evidence about what the charity is doing and ② what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If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charity is really helping others, they make a substantial donation. Those who give small amounts to many charities are not so interested in whether what they are ③ doing helps others – psychologists call them warm glow givers. Knowing that they are giving makes ④ them feel good, regardless of the impact of their donation. In many cases the donation is so small – \$10 or less . that if they stopped ⑤ to think, they would realize that the cost of processing the donation is likely to exceed any benefit it brings to the charity.

1번 : Psychologists who study giving behavior ① have noticed

-> 복수주어 Psychologists에 대한 복수동사 have는 적절합니다.

밑줄이 noticed까지 그어지지 않은 이유? have noticed를 묻게 되면 현재완료 시제까지도 묻는 셈인데, 시제는 독해 영역에 가까운 거임. 최근 15년 간 시제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2번 : about what the charity is doing and ② what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

-> and 병렬구조 / about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what절은 명사절이고 뒤에 불완전해야 함. 명사절인 것 까지는 맞지만 뒤에 나오는 절이 완전하여 틀림 -> 정답

3번 : whether what they are ③ doing helps others

-> whether절의 주어는 what절, 동사는 helps

what절 안에 they are doing은 불완전함. 그래서 어법상 적절함.

참고로 do와 say는 일반적으로 타동사여서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번 : they are giving makes ④ them feel good

them이 맞는지, it이나 themselves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장을 통째로 해석해야 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앞 문장까지 해석해야 해요. 그래서 '실전 상황'에서는 4번 선지를 나중에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2번 선지가 워낙 확실하게 정답이기 때문에 굳이 4번 선지에 시간을 들이는 게 그다지 좋지 않고,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난 후에 시간이 남으면 다시 와서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Words & Grammar

28. ②

[해석] 기부하는 행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두 자선단체에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자선단체에 적은 액수를 기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두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그 자선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와 그것이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관한 증거를 찾는다. 자선단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증거가 보여 줄 경우 그들은 상당한 기부금을 낸다. 많은 자선단체에 적은 액수를 내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지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을 따뜻한 불빛 기부자라고 부른다. 그들이 내는 기부금이 끼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해준다. 많은 경우 기부금은 10달러 이하의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공공이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기부금을 처리하는 비용이 그것(기부금)이 자선단체에 가져다주는 모든 이점을 넘어서가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풀이]

② 뒤에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what은 올 수 없다. 문맥상 '~인지'의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what을 whether로 고쳐야 한다.

[Words and Phrases]

- substantial 상당한
- charity 자선단체
- evidence 증거
- impact 영향
- regardless of ~에 관계없이
- process 처리하다
- exceed 넘어서다
- benefit 이점

Words & Grammar

5번 : if they stopped ㉔ to think,
stop 다음에 부정사와 동명사가 둘 다 가능합니다.
sstop ing ~하던 것을 멈추다
top to-R ~을 하기 위해 멈추다
(바뀌 말하면 “~을 시작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음)

5번 문장의 해석은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오류
(내가 모르는 게 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를 저질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5번 선
지를 체크한 학생이 25%에 육박했었습니다.

4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 부족한 실전 상황임을 가정하면, 5번을 두고 킁킁
덜 것이 아니라 일단은 29번으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2번
선지가 워낙 명백해서 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여 2번에 대해 의심이
들어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엄밀한 해석을 요하는 4번과 5번 선지를 오
답으로 가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능에 가정법이나 시제 문제가 20년 만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구조 먼저 해석 나중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로 놓는 게 확률상 더 좋을
것입니다.

어법 풀이 순서

1. 주어 동사 파악 / 접속사가 나오면 절 찾기

2. 자리와 품사 파악

주목보 -> 명사

명사수식 -> 형용사

명사 이외 수식 -> 부사 (참고로 주어 앞에 있는 모든 구와 절은 부사)

3. 문법적 지식 대입

ex) 명사절일 때 that 다음에 완전하고 what 다음에 불완전하다

4. 해석

예를 들어, [that / what]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뒤에 나오는 절이 완전한지 여부를 먼저 봐야 하나요,

아니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를 먼저 봐야 하나요?

학생들에게 물으면 보통 [완전/불완전]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애는 철저하게 [명사절/형용사절]을 먼저 따져야 해요.

그래야만 틀림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hat절 다음에 완전한 경우와 불완전한 경우가 모두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리즘 상 자리와 품사를 먼저 봐야만 합니다.

Words & Grammar

그리고 [앞에가 동사다 / 명사다]라는 걸로 푸는 것은 좀 위험해요.
 이걸 영어가 아니라 야매잖아요.
 그래서 이번 9평에 어법 문제가 그렇게나 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가 동사다 / 명사다]라는 식으로 풀어왔던 학생은 어려울 수 밖에 없었을 겁
 니다.

[that / what]을 위에 언급한 어법 풀이 순서에 맞춰서 정리하자면,

1. 주어/동사 확인, 절 류기

일단 that이나 what이 접속사가 맞는지 여부부터. that이 단순히 대명사일 수도 있
 잖아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문장 전체를 보고 주어/동사 찾기, 절 류기를 하는 겁
 니다.

2. 자리와 품사

묶여있는 절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를 판단합니다.
 주목보 자리 -> 명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 > 형용사절
 형용사절일 경우엔 그냥 답이 that입니다.
 what절은 명사절로만 쓰이거든요.

that 이후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완전한 경우도 있고 (관계부사의 대응, 동격 that절)
 불완전한 경우도 있으니깐요. (관계대명사)

3. 문법적 지식

이미 2번에서 “형용사절일 경우 답은 that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명사절일 경우만 보면 되죠.
 문법적으로 명사절을 이끄는 that 다음에는 완전하고
 what 다음에는 불완전합니다.

결국 3번까지 해서 답이 나올 겁니다.

4. 해석

해석으로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아무리 연습해도 모호
 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관건은 1번(주어동사찾기, 절 류기)과 2번(자리와 품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1번과 2번을 무시하고 3번만 연습하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겁니
 다. 많은 학원에서 1번과 2번을 무시하고 3번만 수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법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문제를 틀리는 거구요.

Words & Grammar

[that / what]과 같은 문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 대비하면서 대략 천 번은 풀었을 겁니다. **천 번을 푼 문제도 방법이 잘못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방향을 잡는다면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도 모든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구조 파악을 중시하는 문제만 나왔거든요.
물론 해석이 필요한 문제도 당연히 나오지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구조를 먼저 본 다음에
해석을 해야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어는 이래도 말이 되고 저래도 말이 됩니다.
해석을 우선으로 접근하면 얼핏 더 쉬워 보이지만
영원히 어법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을 겁니다.

시간/장소

10월 3일 (수) 개천절 2:00 ~ 5:30
송파이강학원: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9번지 '뽕의 전설' 2층

프로그램

1. 100% 맞힐 수 있는 어법 풀이 순서
2. 문장 단위 연습
3. 평가원 기출
4. EBS 변형

수강료

8만원 (수강료가 낮은 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학원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 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참석 학생 전원

15만원 상당 영어 컨설팅 무료 제공

멀리서 오는 학생이 있다면

<통수단어> 증정